

번호: PO-EP-073					
제 목	충남지역 일본뇌염매개모기 밀도 조사 Investigation for Density of JBE Mosquito in ChungNam Area				
저 자 및 소 속	정윤정1), 서우성1), 이무식2), 나백주2), 김건엽2) 1)충남도 보건환경연구원 미생물검사과, 2)건양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Yoon-Jung Jung1), Woo-Sung Seo1), Moo-Sik Lee2), Bak-Ju Na2), Kewon-Yeop Kim2) 1)Microbiology Examination Section, Chungnam Health & Environment Research Institute, 2)Department of Preventive Medicine, College of Medicine, Konyang University				
분 야	역 학 [전염병 역학]	발 표 자	발 표 형 식	포스터	
<p>모기는 사람과 동물에게 피해를 주는 위생해충으로 전 세계적으로 분포하며, 모기의 종류는 3,000종 이상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일본뇌염이 예방접종 대상인 3~15세 어린이층에서는 거의 발생하지 않는 반면, 당뇨 등 만성질환으로 면역력이 약해진 성인층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다. 본 조사는 주요 질병매개모기에 대한 종류 및 개체군 밀도조사를 통해 일본뇌염 유행예측과 예방대책을 수립하는데 기초 자료로 이용하고자 실시하였다.</p> <p>조사지역으로는 연기군, 논산군, 당진군 3곳으로 모기 채집은 4월부터 시작하여 10월까지 매주 2회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채집된 모기는 즉시 클로로포름으로 마취시킨 뒤 실험실에서 건조하여 현미경하에서 분류하였으며 수컷은 채집 수에 포함시키지 않았다.</p> <p>충남지역에서 조사기간 동안 조사된 개체별 모기 중 올해 일본뇌염 매개모기인 작은빨간집모기는 전체모기개체수의 약 12%를 차지해 지난해보다 2% 정도 높게 나타났다. 월별 총개체수는 조사기간 동안 8월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지난해에 비해 한달 정도 늦게 최고치에 도달하였다. 한편, 당진을 제외하고 지난해와 비교해 보면 총 개체수는 지난해보다 약 2배 정도, 작은빨간집모기는 약 3배 정도 증가하였다.</p> <p>전국 채집현황은 8월에 총 개체수가 최고치를 보였으며, 지난해나 평년보다도 월등히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또한 작은빨간집모기의 경우도 평년보다 8월에 높은 수치를 나타내어 전반적으로 충남지역과 유사한 경향을 나타내었다.</p> <p>일본뇌염을 근절하기 위한 예방대책으로 보건당국은 취약지역에 대한 방역소독 횟수를 증가시키고 특히 가축사육장, 하수구, 지하실 등 모기서식처에 대한 집중적인 살충소독과 수해로 생성된 물웅덩이를 매립하고 배수구를 정리하는 등의 모기구제를 위한 방역활동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또한 노약자나 어린이는 야간 외출을 삼가 하고 모기장을 치거나 모기약을 뿌리고 잠을 자도록 하는 것이 예방에 도움을 준다. 특히 3~15세의 아동은 일본뇌염 예방접종을 꼭 맞아야 하며 3세에 2회, 4세에 1회 접종하는 기초접종과 그 이후 15세가 될 때까지 2년 간격으로 추가 접종하는 것이 필요하다.</p>					